

# 포천시 문화분야 6월 주요 업무

## 산정호수 분수대 설치 설계용역 보고회

포천시는 31일 오후4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산정호수 분수대설치 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대우엔지니어링 차장 봉성국씨가 박운국 포천시장과 시의회 의원 5명, 시정책위원 6명, 관광지 15명, 면리장단 19명, 지역주민 대표자 22명 등 모두6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 내용은 분수대 실시설계 내역 및 모델별 설치계획 영상 보고이다.

## 산정호수 고사분수 설치사업 착공

포천시는 6월중에 16억2천500만원을 들여 고사분수 워터스크린 설치사업을 착공한다.

포천시는 오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산정호수 인공폭포 설치사업 착공

포천시는 6월중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들여 9월까지 산정호수 인공폭포 설치사업에 착공한다.

##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학술용역 보고회

포천시는 6월중에서 사업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발주한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학술용역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 운악산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

포천시는 6월중에 사업비 4억

포천시는 6월중에 화현면주민자치센터에서 3천만원을 들여 운발주한 안산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 시립 일동도서관 현장설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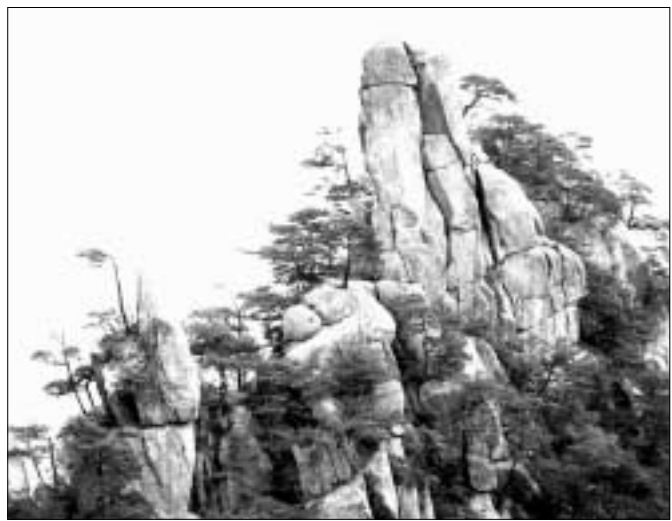
포천시는 시립일동도서관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오는 6월7일~8일까지 접수하고 8일 현장설명회 7월19일까지 작품을 제출하고 8월중에 심사발표할 계획이다.

## 문화소외지역군·경 도서지원 계획

포천시는 6월중에 문화소외지역인 군·경에 도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4개소(5군단, 6군단, 6사단, 8사단)이며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재난재해시 현상적으로 대민지원에 참여하는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군사령부의 추천을 받은 4개 부대에 도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운악산



▲ 산정호수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99)

###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박물관



물원 개원(1991년), 국도녹화기념탑(1992년) 건립등이 진행되었다.

입업 시험장에서는 산 생물분류 및 유전자자원보존, 양묘시험기술의 체계화, 경신 및 육림기술의 체계화, 산림작업화 작업시스템 개발, 산림작업기술개선행시제, 임도계획설계, 시공 및 관리 기술개발등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인공림 772ha, 천연림 1003ha 기타 17ha를 보유하고 자연식물 983종(목본393, 초본691)과 동물 2881종(조류157, 짐승29, 곤충2,439 거미등2,576)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조류(크낙새, 소쩍새, 올빼미, 수리부엉이 등 18종) 곤충(장수하늘소) 등을 기르고 있으며 상급 광릉시험장 수목원과 박물관 개관(1987년), 산림육종장 개장(1989년), 야생동

유한 국내 최대규모의 수목원이 있는데 침엽수원, 활엽수원, 외국수목원, 관목원, 만목원, 관상수원, 약용식물원, 수생식물원, 지피식물원, 맹인접자식물원, 난대식물원(온실1,610평방미터)등 전문수목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은 지상2층, 지하1층(4,617평방미터)면적에 국산 목재 및 석재로 건축하였으며 12,775종의 전시품이 있다. 산림자원과 기술, 산림과 인간, 세계의 입업, 한국의 입업, 한국의 자연 등 5개의 전시실 및 표본사료실이 있으며 세계적 육종학자인 현신규박사(전 서울대 농대교수, 현사시나무 육종창시자)홍상이 있다.

산림육종장은 290ha육로 4코스 에다 힘기르기 숲, 만나는 숲, 독서하는 숲, 명상하는 숲, 시가 있는 숲, 조각이 있는 숲, 아서

운 숲 등 7종이 있다. 야생동물원은 15종(집승8, 조류7), 방사장100ha로 국내 최초 개장한 바 있으며, 호랑이(백두산: 중국에서 기증함),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너구리, 사슴, 멧토끼, 산양 등 8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류로는 꿩, 수리부엉이, 원앙, 독수리, 말뚝가리, 산꿩 등이 있다.

이토록 내 고향 포천의 1등 명승지이자 국립기관인 광릉수목원 일대는 연인과 벗들과 학생들의 모임 장소로도 그 예술성을 자랑하고 있다. 건강을 다지는 한국 최초 최대규모의 산림육종장과 산림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광릉숲은 5일전에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문의 : 031-540-2000 인터넷 www.korea-plants.go.kr:9300)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이곳 입업시험장에는 서울대 농대 입학과 출신인 이원규 연구관이 근무하며 노력과 맘을 흘린 곳이기도 하다.(포천출신 산림연구원장)

필자연락처 : 02-932-2434

## 포천의 명현탐구 (95)

### 이사검(李思儉): 고려우왕7년(1381)~세종28(1446)



리효종 (포천향토사연구회장)

본관은 양성(陽城)이고, 개성유후(開城留侯) 정절공(靖節公) 목(沃)의 자이다.

1405년(태종5)에 무과에 급제하고 사직(司直)에 임명되었다. 1409년(태종8)에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세자로 명나라에 조하(朝賀)할 때 수행하여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행동이 세자로서의 법도에 어긋나자 바로 하도록 증간(忠諫)하니 점점 멀어졌다.

1418년(태종18) 충녕대군(忠寧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자 세자를 보좌하였고 비유(比類)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다.

1419년(세종1) 왜구(倭寇)가 황해도 연안에 침입하자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가 되어 부임하였으나 왜구가 식량을 요구하면서 교묘하게 술책을 써 오자 이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은 사건으로 응징에 유배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1427년(세종9) 진응사(進鷹使)가 되어 매를 가지고 명나라로 가는 도중 요동에 이르렀을 때 매가 죽었다. 그러자 죽은 매를 가지고 북경에 이르러 중국 황제에 대한 조선임금의 예를 그린 것을 사죄하니 명나라 황제 선종(宣宗)은 오히려 이를 기특하게 여겨 장군모(將軍帽)를 내렸다.

1429년(세종11) 좌군첨총제(左軍僉摠制)가 되고, 이어서 경상좌도첨제사(慶尙左道僉置使)가 되었다.

1437년(세종19) 경상좌도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사검은 일찍이 왜구에 대한 방비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1.왜관(倭館)을 옮길 것 2.진관(鎭管)을 조정할 것 3.병선(兵船)을 증강할 것 4.병기(兵器)에 검열을 철저히 할 것 등이었다.

1444년(세종26)에 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었고 이어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었다.

1446년(세종28) 병졸(病卒)하니 세종은 조화를 하루 폐하고 장례에 예의를 다하도록 하였다.

## 왜구의 침입에 대한 방비책 제시 공정하고 부지런한 직무수행 돋보여

아들 휘(徽)는 성삼문(成三問), 이개(李愷), 유성원(柳誠原), 박평년(朴平年) 등과 함께 단종(端宗) 복위운동을 꾀하다가 순절(殉節)한 단종충신(端宗忠愍)이었다.

숙종조(肅宗朝)에 신원(伸冤)되어 공주 동학사(東學寺) 속모전(肅慕殿)에 사육신과 더불어 영위(靈位)를 봉안하고 춘추로 봉향하고 있다.

이사검은 성격이 너그럽고 후덕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공정하고 부지런하였다. 시호는 공소(恭昭)이다.

묘는 창수면 가양리에 있는데 묘 앞 장군석 머리부분은 다른 무인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자를 쓴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장군모를 본뜬 것이라고 한다.



▲ 이사검선생의 묘

## 마홀독서회 창단 10주년 기념문집 발간

### 회원 10여명의 10주년 기념 '종이곰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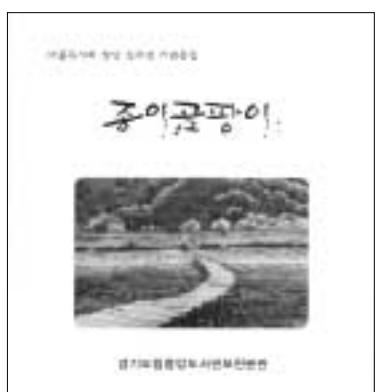
마홀독서회(회장 조미경)는 평범한 사람들이 매월 1권의 책을 읽고 만나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모임이다. 이렇게 매월 만나기를 10년, 그동안 회원들 상호간의 다진 끈끈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종이곰팡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판권분관)를 발간했다.

이번 책 발간은 마홀독서회를 돕기 위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판권분관(관장 박영환)이 발행했다. '종이곰팡이'는 모두 108쪽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들의 활동상을 화보로 수록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시와 수필, 독후감 등이 수록된 '종이곰팡이'에는 ▶올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준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바보 이반의 산 이야기▶밤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김승욱의 무진기행▶김승욱의 서울1964년 겨울▶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정재승의 과학콘서트에 대한 독후감도 실려 있다.

마홀독서회 조미경 회장은 권두언에서 "마홀독서회는 십 년 전 오월의 햇살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제서 조금 뜻을 새기며 글을 읽을 줄 알게 된 듯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출판 소감을 밝혔다. 박영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판권분관 박영환 관장은 "10년 성



상 동안 꾸준히 서로를 격려하며 책을 통하여 삶의 진솔한 의미를 되새기는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 오신 모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잔잔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마홀독서회가 포천시민의 사랑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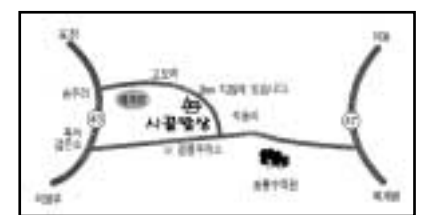
# 황태찜·버섯두부전골 전문점 '시골밥상'

"고모저수지의 아름다운 배경, 가족·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최적인 시골밥상은 언제나 신선하고 깔끔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박향미

- 시골정식(2인기준) 20,000
- 버섯두부전골(大) 30,000
- 황태찜(中) 30,000
- 백숙 25,000
- 해물파전 10,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225-2 예약문의 : 031)543-2070 대표 : 박향미